

강진군, 육아수당 효과 지속적인 출생아 증가세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 지급
관내 계속 거주자 출산비율 72%
2022년 93명, 2023년 154명 전국 2위
부정수급 방지 거주 여부 지속 확인

강진군의 출생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2011년 471명이던 출생아가 꾸준히 감소해 2022년 93명까지 12년만에 무려 80%가 급감했다.

2022년 10월 강진군의 육아수당정책이 도입된 이후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오르는 등 강진군 출산율 증가의 전환점이 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강진군 출생아수는 158명이다. 이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2022년 1~11월) 85명과 비교해 73명이 늘어 85.9%로 증가한 수치

다. 여기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2%로 나타나 유입인구가 아닌 강진군 인구의 순증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육아수당 지급대상 351명 중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168명으로 다자녀 출산비율이 47.9%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첫 아이의 출산뿐 아니라 둘 이상의 아이까지 계획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

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1월 말 현재 누적 월

351명, 32억원이 지급돼 강진

군 출산율 증가 효과를 증명하

고 있다.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

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 확인 서류

를 비롯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육아수당이 강진군의 12년만의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만큼 그 효과를 증명해내고 있다”며 “9년만에 늘어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강진군에서 인증된 현금성 우수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너지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영암군, 상반기 109개소 농가 도움

영암군이 지난 7일부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첫 운영에 들어간 파쇄지원단은 과수 잔가지, 고춧대 같은 영농부산물을 처리해 농가의 일손을 돕고,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을 동시에 이루는 제도다.

영암군 파쇄지원단은 지정된 날짜에 30개 농가를 찾아가 20ha의 영농부산물 파쇄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군은 상반기 109농가 80ha의 영농부산물을 파쇄처리해 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파쇄 지원으로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피해를 95% 줄이고 미세먼지도 최대 24% 저감하는 등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물, 연말 고객 감사제 기획전 목요특가·리뷰이벤트 등 행사 병행

영암군이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암물’에서 ‘연말 고객 감사제 기획전’을 진행한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연말 ‘고객 감사제 기획전’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감사쿠폰을 최소 1000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1인당 2매씩 지급한다. 구매 금액이 높아질수록 할인율이 증가한다.

아울러 군은 ‘연말 결산 베스트 어워드’를 진행하고 올 한 해 영암물을 애용한 고객 중 선정을 통해 최대 10만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증정하는 특별 행사도 병행한다.

‘영암무화과댄스챌린지’ 참여자에게는 영암 무화과 피자를 출시한 반올림 피자 기프트콘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 9월 인플루언서 ‘이짜나언짜나’와 영암 무화과를 주제로 진행했던 댄스 챌린지 참여자 중 15명을 선발해 제공한다.

이 외에도 기획전 기간 매주 목요일 40~50% 상당의 특별할인 품목을 선보이는 ‘목요특가’, 구매 고객의 정성이 담긴 리뷰를 선정해 영암 우수 농수축산물을 증정하는 ‘리뷰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기 기획전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가 수확되고 있다. 해남군은 16개 농가, 6.9ha 면적에서 딸기를 재배 중으로, 국내 육성 품종인 ‘설향’을 축성 재배해 12월 상순부터 출하하고 있다. 해남=제광

해남군, ‘설향’ 딸기 축성 재배 출하 시작

해남 딸기가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16개 농가, 6.9ha 면적에서 딸기를 재배 중으로 국내 육성 품종인 ‘설향’을 축성 재배해 12월 상순부터 출하하고 있다.

해남 딸기는 한반도 최남단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돼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고설베드, 차광, 양액 공급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팜 시설과 현대화된 수경재배를 통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딸기는 고소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토경 재배에 따른 노동력 증가로 고령화된 농가에서 외면받아 왔으나 현대식 양액재배 방법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인구와 청년들을

중심으로도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에서는 임대실습농장 프로그램 운영과 재배 기술 교육 등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을 추진 중이다.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딸기 우량모 생산 기술시범사업을 진행해 자체 모종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 내년부터 자체 생산한 모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품질 딸기 재배를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부동산 투기·지가 급등 사전 예방

목포시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인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865필지)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12월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재지정했다.

현재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의 재정비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상업지역 150㎡ 등을 초과해 거래할 시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행위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송년 음악회 기획 공연 17일 문화예술회관서

목포시가 송년을 앞두고 특별한 연우회를 개최한다.

목포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표도로 아마소프 교수와 피아니스트 김소영 교수를 초청해 오는 17일 오후 7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행복도시 목포 2024 송년 음악회’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러시아 출신의 표도로 아마소프 교수는 현재 모스크바 국립중앙음악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15년과 2019년 세계 3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과 첼리스트다.

함께 무대에 오를 김소영 교수는 수원대학교 객원 교수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피아니스트이다. 김 교수는 이번 공연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차이콥스키, 하찬투리안,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등 클래식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뛰어난 연주와 함께,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설도 제공돼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 대상은 8세 이상이며 전 좌석 무료다. 다만 지정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입장권을 예약해야 한다.

입장권 예약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가능하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평생학습 예술제 성료 학습 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 등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군 평생교육강사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평생학습 예술제가 ‘평생학습으로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6일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평생학습 예술제는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관내 26개 단체 및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학습자는 물론 군민도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학습자와 강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 한 해 평생교육 발전과 군민 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예술제에서는 하모니카 등 악기와 삼도설장구·북춤 등 농악, 댄스 등 6개 분야 17개 팀의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으며 전시관에는 서예와 시, 미술, 켈트, 다도 등 8개 동아리의 작품들로 채워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평생학습은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이 한 단계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연간 150여개의 강좌와 60여개의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여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평생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7년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으며 2022~2023년에는 2년 연속 전남도 주관 평생학습 활성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